

## 사회적기업, 세상을 달려라! 제10회 '세상 콘테스트' 개최

2014년 3월 3일 세상 콘테스트 전국 설명회를 시작으로 3개월 동안 끊임없이 달려온 '제10회 세상 콘테스트'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수펙스홀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세상 콘테스트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정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임팩트, 경영 역량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잡고 전문 심사위원단, 온라인 멘토단 '세상 프렌즈'와 SK사회공헌 및 사회적기업 담당자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이 수상했다.

연매출 3억 이상, 또는 설립 3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기 부문에서는

'트래블러스맵'이 상금 5천만 원을, '오르그닷'이 3천만 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제네럴바이오'가 각각 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 이중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SK 세상 콘테스트 중 최초로 수상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사회적 임팩트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었던 이번 제10회 세상 콘테스트에서 의료생협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널리 알려졌다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연매출 1억 미만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부문에서는 고졸 이하 위기청소년을 핵심인재로 성장, 지원하는 아이디어로 '연금술사'가 1등을 차지했고 2등에는 '토닥토닥 협동조합', 3등엔 '다누리맘'과 '협동조합 온리', '자

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등 기업에게는 3천만 원, 2등은 2천만 원, 3등은 1천만 원이 수여되었다.

스타트업 부문에서 1위를 수상한 박진속 연금술사 대표는 "수상도 기쁘지만 세상 콘테스트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멘토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 사업 모델을 정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유형제 SK행복나눔재단 총괄본부장은 "세상 콘테스트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발굴, 육성, 투자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성장 모멘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더 많은 사회

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창업 이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임팩트투자의 기회와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활력있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수상기업에게는 상금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세상 워크샵, 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멘토링, 투자 대상 기업을 육성하고 브랜드를 개발하는 IR 컨설팅, 기업별 특성에 맞춰 심도 있게 진행되는 집중 인큐베이팅 등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장이슬 기자\_Leeseul@ksen.co.kr

### 제10회 세상 콘테스트 수상기업

#### 연금술사(소풍가는 고양이)

학교도 가지 않고, 직업도 없는 청소년들이 오늘, 지금 당장의 일을 통해 삶을 배우고, 자신감과 직무능력, 책임능력을 갖추며 동료, 선배, 어른 등의 관계자분을 축적하여 내일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서울시 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의 일학습 프로젝트로 시작한 연금술사는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성미산마을 '소풍가는 고양이' 도시락가게를 창업하였고, 교육으로써의 창업은 어렵다는 교훈을 깨달아 본격적인 사회적기업이 되었다. 초창기부터 다양한 사회적기업과 연대, 교류하며 네트워크 자산을 쌓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토닥토닥 협동조합

카페라는 편안한 공간에서 적절한 가격에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일반의 심리상담 뿐 아니라 지역 청소년을 위해 전문 집단교육과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역 12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바리스타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을 알뜰히 살피는 기업이다.

#### 협동조합 온리(종이정원)

기업활동을 통해서 지역 폐자원의 재활용,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개성있는 지역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공동체 복원에 설립 목적을 둔 소셜벤처기업이다. 무분별한 벌목과 직결되는 폐지 문제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과 유용한 생필품으로 재가공하며, 전통한지의 메카인 전주의 특성을 더욱 살리고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 다누리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이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과 육아를 돕기 위해 각 문화별 특화 산후조리 음식,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별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국적의 산후관리사를 1:1로 연결해주어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리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 뿐 아니라 인문교육을 함께 수행하며, 위기청소년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소셜벤처이

다. 2013년 한국전력공사 희망카페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씬터이자 대한학교인 '자리스쿨(Zari School)'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트래블러스맵

관광여행이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선도 사회적기업이다. 2009년 설립되어 2010년 최초의 여행 부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으며 2012년에는 한국윤리경영학회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한 명실공히 제1의 공정여행사이다. 2013년에는 내팔 사회적기업센터를 여는 등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오르그닷

환경오염과 불공정임금, 노동 문제, 평준화 등 패션산업의 그림자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된 윤리적 패션 사회적기업이다. 친환경, 윤리적, 합리적 소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국내 소재 공장에 제품 생산을 맡길 수 있도록 공장 정보, 커뮤니케이션 툴, 생산관리까지 제공하는 윤리적 생산 플랫폼 'Designers&Makers'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 혁신형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벤처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01년 생활협동조합으로 시작해 2013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 모습을 찾았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기반을 둔 민들레는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써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의료협동조합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보급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든든한 건강 파수꾼이다.

#### 제너럴바이오

코슈메디컬 화장품, 바이오 식품, 친환경 생활용품, 유아용품을 제조하는 전북의 환경 사회적기업이다. 다수의 특허 출원과 등록, 국제화장품 원료공전 신물질 개발하여 등록하고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둔 기업이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유해영향 및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제품을 보급하고, 지역 낙후화로 인한 지역 자원 활용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셜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5월 30일 금요일 오전 11:30분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호텔인터시티에서 한국산학기술학회와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융합학문과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산학기술학회와 대학(원)생들의 논문공모 결과 입상자 수상과 사례발표 등을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핵심성공요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협동조합 전문가 초청토론을 통해 협동조합 정책 방향 제시 및 소상공인 활력지원 등 산학협력 증진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고자 기

획되었다. 학술대회의 행사는 오전기념식과 오후 학술발표 및 토론회 등으로 구성되어, 오전 기념식은 중소기업청 등 주요기관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논문공모 입상자 수상 및 학술대상, 감사패 등을 수여하였다. 이어, 오후 행사에는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수상자(최우수상1, 우수상2)의 논문발표와 함께 해외협동조합 성공사례와 소상공인협동조합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정책 지원 방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생방안,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협동조합 조직 구성원간의 갈등관리, 해외협동조합의 성공요인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또

한, 산학기술학회 등 참가자들이 중소기업, 협동조합, 산학협력, 인문사회 등의 각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고 융합하는 학술발표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이상훈 소상공인정책국장, 하중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이사장, 홍성표 대덕대 총장, 조현섭·최효선 한국산학기술학회 공동회장 등 정부 및 학계 주요인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소상공인협동조합 임직원 및 컨설턴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총괄하는 중소기업청 안병수 소상공인지원과장은 '1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얻은 가시적 성과 등을 바탕으로 '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성공을 위해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 발굴과 협동조합 성과사례 홍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협동조합 문화가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공동장비구매, 공동구매, 공동브랜드개발 등 7개 분야, 조합당 최대 1억 원(자부담 20~30%)한도로 올해 총 400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현진 기자

##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성공리 종료

전국의 우수마을 기업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박람회는 "국민과 지역을 부자 만드는 마을기업"이라는 주제로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인천시와 사단법인 한국마을기업협회가 주최하고 안전행정부가 후원하며, 전국의 우수마을 기업 149개 업체가 참여하여 각 마을기업 제품을 홍보, 전시·판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측 추산 약 3만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축제에 참여하고 마을기업의 취지에 공감했다.

6월 15일 첫째 날 개막식에는 인천시장 등 주요 인사의 환영사와 축사를 비롯해서 마을기업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새 로고는 마

을과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담아 기와와 토지를 연상케 하는 테두리를 두른 원 모양으로, 성공과 신뢰를 도식화하였다.

개막식에 참여한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을기업은 고향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좋은 느낌의 브랜드"라며, "이번 마을기업 박람회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계속 번창하는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인천시에 소재한 중·고교생 및 대학생 중 마을기업 예비창업자로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시·도 대표단의 마을기업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3일간의 박람회 기간 중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과 마을기업 제품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교환권을 지

급하는 각종 이벤트가 준비되었으며, 착한가격업소 등 지역별 대표 먹거리 장터를 운영, 관람객 유치와 판매촉진도 유도했다. 126개 마을기업 홍보 판매부스와 35개 체험부스, 18개의 먹거리부스가 참여했고 우수제품 홍보 판매와 더불어 박람회장을 찾아온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OX 퀴즈, 가위바위보 게임, 윷놀이 대회 등 이벤트와 별론마임, 버블쇼,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또 2014년 9월 개최되는 인천아시안게임,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기도 했다.

특히 2014 대한민국 마을박람회에서는 친환경 에코백, 저염 건강식 등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 뿐 아니라 수제 인형, 가구 등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해졌다. 이는 2013년 기획재정부가 지적한 '마을기업의 레드오션화'를 마을기업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 행사

의 기획과 진행 등을 마을기업에서 도맡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마을박람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 인천시에는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 (주)바른 먹거리 직거래 장터 등 총 43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린 바 있다.

'대한민국 마을박람회'는 마을기업이 안전행정부 소관이 된 2012년 10월 경북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2013년부터 상, 하반기 연 2회 전국 개최하였다. 이번 2014 대한민국 마을박람회는 상반기에는 인천에서 3일 동안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남 진주에서 남강유등축제와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나유진 기자





**아름다운가게 1호 안국점 이전 오픈식 진행**

공익문화창출형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 1호 안국점이 5월 30일 종로구 북촌로 21(재동 헌법재판소 옆)에서 이전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안국점 이전 오픈식은 아름다운가게 홍명희 이사장과 풍문여자고등학교 홍성경 교장의 기념 인사를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대표, 자원활동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전 오픈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은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헌법재판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일,공휴일 제외)운영된다.

(아름다운가게, 2014.06.02)

**경기도,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30곳에 지정서 전달**

경기도는 6월 2일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역량교육과 함께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예비사회적 기업 30개를 지정한다. 경기도에는 현재 385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은 모두 414개가 됐다.

(경기도청, 2014.06.02)

**시흥시 평생학습 '마을학교' 경기도 우수모델로 자리매김**

시흥시가 경기도, 경기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추진 중인 학습형 일자리 창출 및 학습마을 활성화 사업인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벤치마킹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 30일 개최되었다.

'평생학습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12년 8월부터 2015년 1월 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안에서 잠재된 지역인재를 발굴해 강사로 양성하고, 마을자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모델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터전 안에서 학습복지-일-문화를 연계한 새로운 생활세계 패러다임으로, 지식사회와 인생100세 시대라는 맥락 속에서 가치가 확산되는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전략이다.

시가 운영 중인 마을학교는 하중동 참이슬, 정왕동 보성생명순환, 은행동대우3차 1단지, 능곡동 휴먼시아, 매화동 보드매 5개소로, 각 마을에서는 마을학교를 매개로 이웃간 소통과 관계형성, 재능기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마을자치 향상과 보살핌이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5개 마을은 올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마을자원 기반 일감 찾기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컨설팅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흥시청, 2014.06.05)

**포스코가 후원하는 다문화 사회적기업 창업팀, '협동조합의 본고장'에서 배운다**

포스코의 사회공헌사업인 '다문화 및 취약계층여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5기 선발팀들이 지난 3일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사례로 꼽히는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탐방에 나섰다.

한편, 포스코는 다문화 및 취약계층여성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모여 2012년 설립한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인 '카페오아시아(CAFEOASIA)'를 후원하는 등 사회적기업 설립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2014.06.09)

**사천시, 용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서부경남에서 처음으로 사천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천 용현농협(조합장 신재균)은 지난 27일 용현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거행했다. 개장식에는 김주명 사천시장 권한대행과 서동수 농협사천시지부장 그리고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들이 참석하여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운영을 기원했다.

용현농협 하나로마트 내 130㎡ 규모의 매장에는 농업인들이 손수 가꾼 토마토, 무, 양파 등 신선한 농산물과 생산농업인의 사진도 함께 걸려 있어 소비자들에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매 가격도 농가 스스로 결정하고 포장과 진열도 직접 담당하므로 복잡한 유통경로에 따른 가격 거품 없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청, 2014.06.09)

**APEC-특허청 적정기술 콘퍼런스 7월 2일 개최**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립)는 7월 2일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셀레나 홀에서 'APEC-특허청 적정기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콘퍼런스는 특허청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발명진흥회가 주관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와 UN 개발계획, 우리나라 외교부의 관계자를 비롯한 APEC 회원국의 정책 입안자 등 총 25개국이 참여하여 적정기술의 역할과 필요성, 지식재산을 활용한 적정기술개발 우수사례 및 국제 동향, 적정기술 활용의 발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발명진흥회, 2014.06.10)

**서울시 광화문 희망장터, 한강 독섬 나눔장터 재개**

서울시는 6월 15일부터 임시 휴장상태였던 광화문 희망나눔장터가 다시 문을 연다.

기존에 운영되었던 열린예술극장, 글로벌 콘서트 등의 공연은 진행되지 않으며, 장터 내 먹거리는 마실 거리와 간단한 간식만 판매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장터가 운영되며, 매주 토·일요일 개장하는 한강 독섬 나눔장터는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광화문 희망나눔장터'는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서 월별, 계절별 주제에 따라 특화된 열린 나눔장터로 매주 일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쓸만한 재사용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용돈도 벌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재활용장터와 전국 61개 시·군 200여개 농수특산물을 직거래로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농부의 시장', 사회적기업·자활기업의 친환경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장터, 자활기업장터가 운영되고, 품물시장의 잡화, 공예품을 판매하는 서울품물시장,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하는 외국인장터와 25개 자치구의 소방안전체험존 등 총 247개 부스의 다양한 이색장터들이 가득 들어선다.

(서울특별시, 2014.06.12)

**충남발전연구원, '마을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 심포지엄 13일 개최**

바람직한 마을공동체의 미래 모습을 논의해보는 심포지엄이 6월 13일 개최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이하 충남발연)이 개원 1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마을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이다. 충남발연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이혜준 원장이 '전통마을의 역사문화적 성격'으로, 충남발연 조영재 박사가 '충남의 마을 현황과 과제'로, 그리고 마을연구소 정기석 소장이 '마을의 미래,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충남발연 강현수 원장의 좌장으로 충남대 김필동 교수, 연세대 조한혜정 명예교수,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하승우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마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얘기해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4.06.13)

**청계천 수상 시니어패션쇼 주말공연 열려**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하는 청계천 수상 시니어패션쇼 공연이 6월 14일 청계천 오간수교 수상무대에서 열렸다. 뉴시니어라이프는 이번 행사를 마친 후 6월 27일부터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초청으로 중국동포를 격려하는 시니어패션쇼 공연을 위해 연길시로 떠나며, 오는 9월에는 작년에 이어 유럽동포들이 초청하는 순회공연을 독일, 벨기에, 네델란드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니어라이프는 사회적기업으로서 8년 동안 국내외에서 총 80회 시니어패션쇼를 공연한 많은 사업경험과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패션쇼를 위해 50세 이상 남녀 1천여 명에게 모델교육을 시켜온 비영리단체이다.

(뉴시니어라이프, 2014.06.13)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제 7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참관**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이 안전행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제 7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7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Stat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참석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 협약에 따른 한국 정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9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내일을여는멋진여성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참관 외에도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오준 대사와의 만찬, 싱가포르 장애인협회 회장과의 네트워크, 반기문 사무총장이 주최하는 유엔 한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분야 관계자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였다.

(사단법인 내일을여는멋진여성, 2014.06.17)

## 공유경제, 파괴적 혁신



기존의 소비와 소유의 개념을 뒤엎는 공유 경제는 지속적으로 기성 체제와 기업의 견제를 받아왔다. 운전자와 승객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차량 중개 서비스 우버(Uber)가 그 좋은 예이다.

2014년 6월 11일 런던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는 유럽 택시업계가 우버(Uber)의 유럽 진출에 반발하며 택시업계가 대규모 파업을 했다. 유럽 택시업계는 우버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위를 했다. 미국에서도 조직적인 반발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국 시카고에서 우버가 합법이 되자 택시 기사들이 노조 결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관련 시위가 있었다. 기존의 법과 경제 체제와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새로운 그 '무언가가 등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유사택시로 간주하여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유사 공유차량 서비스 사이드카(Side Car), 리프트(Lift), 플라이트카(FlightsCar)도 택시 및 렌터카 업계로부터 지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우버 측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버는 단순히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러기엔 우버는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또 너무 훌륭한 기업 가치를 갖고 있다. 우버를 비롯하여 여러 공유기업은 자신들이 그저 '인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이길 원하는 모양이지만, '공유업'은 이제 새로운 IT기반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성 산업과 체제를 위협하는 공유 '경제', 또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렸다.

### 누가 이익을 얻는가?

에어비앤비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공유기업으로, 온라인을 이용해 회원의 빈 방과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중개 사이트이다. 에어비앤비 뉴욕 지부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40위 내에 들어가는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지난 3년간 적어도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매출

을 올렸다. 투자자들이 계산한 에어비앤비의 회사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이다.

프랑스는 지난 3월 에어비앤비를 합법으로 인정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는 임대업에 적용되는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 한해 사업을 허용했다. 영국은 법안 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남는다. 회원과 숙박객을 알선해주고 소정의 소개료를 받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인가? 방을 대여한 숙박객은 에어비앤비와 방 주인 두 사람에게 이증으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가? 방을 빌려준 회원은 개인사업자인가? 에어비앤비의 중개업은 그들의 주장처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은, 세부적인 규정은 다르나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 사업을 불허하는 입장이다. 단기임대에 관한 각 시의 실정법에 에어비앤비의 사업 형태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규제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대리징수' 및 '자진납세' 형식으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일은 거의 없고, 이 점을 악용한 숙박업계가 개인사업자를 가장하여 탈세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과연 에어비앤비가 정말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오는 것은 좋지만 관광객으로 인한 현지 주민의 민원은 어디에나 있고, 또 집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회원이 에어비앤비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사건도 있다. 에어비앤비가 사업하는 샌프란시스코와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들은 주택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 믿을 수 있는가?

에어비앤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유기업 대부분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주는 중개업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을 대부분 개인

이 진다. 공유기업을 옹호하는 쪽은 기성 업체와 공유기업 중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고 말한다. 또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이것이 공유기업의 큰 장점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은 자유시장 체제 하에서 소비자가 내릴 문제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유경제가 지향하는 협력적 소비 뿐 아니라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 가 된다.

국내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는 조직은 서울특별시이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지원 뿐 아니라 시 차원에서 2013년 2월부터 승용차 공동이용 서비스 '나눔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14년 5월 26일, "나눔카를 소중히 이용해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나눔카의 대여와 반납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전용 주차장을 불법 점유하는 일반 차량의 문제는 나눔카와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더 많이 홍보하면 될 문제이다. 그러나 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애원동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이용자가 늘 어났다는 것은 '신뢰가 중요한 공유기업에게 큰 타격이 된다.

공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건을 빌리는 사람과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은 사용자가 물건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돌려줄 것이라 믿고, 빌리는 사람은 물건이 깨끗하고 잘 작동하는 양품이라고 믿는다. 신뢰는 한 쪽만 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중개자가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어느 한 쪽이라도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양쪽 뿐 아니라 중개자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다.

공유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뛰어난 IT 활용 능력도 아니고, 많은 회원 수, 혹은 자금력이 아니다. 신뢰로 쌓아온 브랜드의 가치이다. 공유기업은 규칙을 어겼을 때 철저한 패널티와 보상을 집행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여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많은 신뢰를 쌓아온 기업도 정작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두 사람의 문제이니 두 사람이 해결하세요." 라고 책임을 돌려려는 유혹에 빠지고 만다.

### '공유혁명'을 일으키기에 앞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말은 2008년 하버드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 경제에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08년 등장한 협력적 소비(Coolaborative Consumption)의 파생개념 정도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한 축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대안경제로 성장했다. 공유경제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용자를 작은 사업자로 만들어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인이 미디어의 소비이자 생산자로 만든 정보혁명을 연상케 하는데,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공유기업이 대부분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이며 기존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파괴적 혁신'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와 정보혁명은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많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보혁명의 혜택을 입고 태어난 공유기업의 특성상 국경도 없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한국의 눈은 너무나 순진하다. 완벽한 이상형이거나, 아니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시도이거나.

지금도 국내에서는 소셜 벤처라는 이름으로 해외의 성공한 기업의 아이템을 현지화 하거나 개량한 공유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발굴 사업과 대화를 통해 더 많은 공유기업과 사업가가 나타나길 장려한다.

그러나 역사가 짧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공유기업을 설립하는 사업자가 대부분 젊고, 소규모 벤처기업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 공유경제와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일으키는 갈등을 온전히, 정면으로 받아들일 체력이 되지 않는다. '신진식인'이라든가 '벤처 열풍'이라는 단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잊혀버렸다는 것을 인정하자. 정보혁명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없었듯, 이미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공유혁명도 마찬가지이다. 이왕 시작한 "Me too" 라면, 해외의 갈등 사례와 그 경과를 미리부터 분석하고 대비하며, 지금 몸담고 있는 영역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장이슬 기자 Leeseul@ksen.co.kr



## 북크로싱, 공유경제로 다시 태어나다 공유경제 도서관 '열린책장'



**상호** 주식회사 열린책장  
**주소** 대전광역시 대흥로 10번길 9  
**대표** 강화평  
**전화** 042-719-1004  
**홈페이지** www.wingbook.co.kr  
**블로그** blog.naver.com/sharebook  
**페이스북** facebook.com/wingsbooks

한때 애서가 사이에서 북크로싱(Book-Crossing)이 유행한 적이 있다. 미국의 론 혼베이커(Ron Hornbaker)는 집에서 한 번 보고 서재에 꽂아놓았지만 한 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돌려읽으며 서평을 쓰는 등 '독서', '쓰기', '나눠주기'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독서를 활성화시키자고 주장했고, 이를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북크로싱은 그 웹사이트의 이름으로, 책을 읽은 후 책 속에 북크로싱 메시지를 끼워넣고 공공장소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책을 두어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책 놓아주기'라고 하여 수도권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북크로싱의 몰락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이라 여겨졌던 익명성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북크로싱의 핵심은 끊임없는 공유와

등록을 통해 책의 여행 과정을 지켜보는 건데, 책을 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않아 도중에 책을 분실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책을 훼손시킨 상태로 다시 공유하는 등 몰상식한 일도 종종 발생했다. 북크로싱에 대한 홍보 부족도 문제였고, 그렇게 몰락했다.

'열린책장'의 모티브가 북크로싱인지는 알 수 없으나, 책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는 점에서 북크로싱의 몰락을 아쉬워하는 애서기는 이 스타트업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린책장'은 '책의 공유는 단순한 물건의 공유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의 공유'라는 신념 아래 착실하게 사업을 키워가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의 신흥 공유기업이다. 홈페이지에 '책장에 있는 책'을 등록하면 그 순간부터 책을 대여해줄 수 있는 개인 도서관이 생긴다. 기존의 북크로싱과 달리 책의 위치 추적이 용이하고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2014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아이디어로 KDB 대우증권 Jump Up 사업단에 선정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책은 수요는 높으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대여해주는 도서관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그 자체로 큰 사회공헌이 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열린책장은 현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독서지도, 도서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을 실현하고 있다.

사실 온라인상에서 도서 관련 콘텐츠는 궁극적으로 책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경험을 집약시키는 일종의 포털이 될 수밖에 없고, 플랫폼 그 자체로는 특별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이다. 이는 열린책장 뿐 아니라 유사 책장 공개 서비스인 '유저스토리북(userstorybook.net)',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책 속의 한 줄도 겪고 있는 고민이다. 콘텐츠의 한계는 사업의 다양화, 타 업종과의 창의적인 연계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문을 연 공유기업 기대주 '열린책장'은 착실하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중이다.

김주혁 기자

## 즐거운 우리 집, 너와 나의 우주 셰어하우스 'WOOZOO'



**상호** WOOZOO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207호  
**대표** 김정현  
**홈페이지** woozoo.kr  
**블로그** blog.naver.com/project\_ok  
**페이스북** www.facebook.com/Project.woozoo

셰어하우스(Sharehouse)는 2000년대부터 일본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새로운 주거형태이다. 대지진과 경제불황으로 주거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늘어나자 외국어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초기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어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내국인 학생이 늘어났고, 일본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핵으로 떠올랐다. 개인적인 공간은 그대로 둔 채 주방, 화장실, 세탁 등의 공간은 공용으로 사용한 셰어하우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설계단계부터 특별한 셰어하우스도 나타났다. 자전거 출퇴근족을 위해 자전거 전용 공간을 갖추거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피트니스 시설 등을 갖춘 셰어하우스가 그런 종류이다. 그리고 2012년 10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셰어하우스 WOOZOO'는 이런 일본의 셰어하우스 모델을 채용하고 독특한 경영방식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셰어하우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에서, WOOZOO는 셰어하우스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먼저 WOOZOO가 오래된 집이나 비어 있는 집을 임대한 후 깨끗하게 보수하면서 한 가지 성격을 상정한다. 그 뒤 입주자를 모집하고 선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고 있다. 셰어하우스라고 해도 결국 함께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같은 관심사와 취미, 꿈을 가진 사람이 모여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WOOZOO의 셰어하우스에 입주한 사람들은 'WOOZOO인'으로 불리며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가 없다.

입주민과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오픈하우스 파티, 컨셉미션, 청소데이 등 정기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전 지점의 우주인을 위한 네트워크 파티도 개최하고 있다.

WOOZOO가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셰어하우스라는 것은 곧 WOOZOO가 한국 셰어하우스 사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개성적인 컨셉을 갖고 유대를 강조하는 WOOZOO의 모형은 현대인의 이상을 빠르게 포착하는 방송에서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Olive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송인들이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살고 식사를 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 '셰어하우스', SBS에서는 연예인이 한 집에 모여 좌충우돌하며 조금씩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룸메이트'를 방송중이다. 미화와 과장이 다소 첨가되어 있지만 그 모습은 WOOZOO의 모습과 어느 정도 맞아 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WOOZOO는 지난 6월 17일부터 'WOOZOO 하우스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공공주거시장 확대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 하우스매니저를 교육하기로 한 것이다. 하우스매니저는 셰어하우스 내에서 입퇴실 관리,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시설관리까지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시장은 커지고 필요는 있지만 교육도 전문인도 전문한 상황에서 WOOZOO는 단순 임대업에서 머물지 않는다. 인증 사회적기업이나 공유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은 거부하지만 그 행보는 진정한 사회적기업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WOOZOO의 세계가 얼마나 넓어질지, 또 어떤 모습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미술 기자 Leeseul@ksen.co.kr

# 사회적경제 교육

## 세상을 한 뼨 더 키우는 프로보노 봉사단 모집

2014년 5월 22일~11월 15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케팅, 인사, 회계, 디자인, 법률법무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전문성 있는 프로보노 봉사단을 조직한다. 모집분야는 마케팅·홍보 분야, 디자인 IT, 인사·노무 총 4개 분야이며 개인 뿐 아니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다. 5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사)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프로보노센터 홈페이지(www.prbanchub.org)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1일 학교 개최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13:30~15:30/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부산 시민과 사회적경제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자 1일 학교를 개최하였다. 교육은 '알고보면 신나는 사회적경제', '소통을 위한 조직의 이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는 국내에서 교육, 홍보 활동이 활발한 중간지원센터 중 하나이다.

## 2014 사회적기업 창업교육과정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매주 화, 금 19:00~22:00/올레스퀘어 드림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글로벌창업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창업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창업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무 교육 과정이다. 대상은 30세 이하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으로, 사회적기업 전환을 준비하는 기영업자도 지원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가적 접근과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워크샵, 사례 위주 강의 뿐 아니라 모의창업과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사업화를 위한 100시간의 훈련과 멘토단을 운영한다.

## 가치나눔 2014 사회적경제지도사 과정

2014년 6월 14일~7월 12일/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

사회적경제 컨설팅기업 (주)가치나눔은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평생교육원과 제휴하여 사회적경제지도사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기간은 2014년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매주 수요일 19시~22시, 토요일 10시~17시에 교육을 진행한다. 수강료는 66만원이며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하였다.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설명회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14:00~16:00/상상우리 교육장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알리고 각 부처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6월 16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각 부처에 적합한 예비사회적기업은 무엇인지, 재정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 2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 2014년 전북 협동조합스쿨 제2기

2014년 6월 20일~7월 11일 매주 금요일 14시~18시/전라북도청 공연장 세미나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 실무자, 운영자, 또는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관련 이론, 실무역량강화교육, 선진지 탐방 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스쿨' 수강생을 모집했다. 지난 전북 협동조합스쿨 제1기의 강점이었던 실무적 지식, 활용능력 함양을 그대로 이어 받아 전북 협동조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 개소기념 포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14:00~16:30/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 류

현장과 떨어진 경영이론, 집합식 강의, 고전 경영 중심 교육 등 사회적경제에 맞지 않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해 새로운 학습과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기 위해 희망제작소에서 사회적경제 핵심인재육성센터를 개소했다. 개소기념으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로드맵',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성과와 향후 방향',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바라본 인재육성 필요성과 방안' 등 세 가지 주제로 각각 사회혁신 There 정상훈 상임이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최혁진 본부장, 김인선 우리기만드는미래 대표가 오픈 테이블 토크를 펼친다.

## 2014 강동구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공모

모집기간 5기~6월 30일/6기~8월 31일/7기~10월 31일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를 지원한다. 매 기수 당 4팀을 선정해 한 팀당 최대 80만원의 활동비,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 및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학습하고자 하는 3인 이상의 동아리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운영을 고민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동아리이다. 강동구민 혹은 지역 내 직장인이 최소 1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월1회 이상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필수 프로그램에 꼭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 대학생협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대학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생협의 역사와 미래>

2014년 7월 4일 금요일 14:00~17:00/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989년 한국대학생협연합회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학생협이 본격화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지난 25년 간 대학생협은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만들어 대학 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2014 협동조합주간을 맞이하여 한국대학생협연합회 및 박홍근 국회의원은 한국대학생협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시설사용료 문제를 비롯한 현안과 대학생협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서울특별시 제3차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

2014년 7월~12월

서울시는 지난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 참여자를 모집했다. 2014년 세 번째로 조직되는 이번 활동은 특히 사회적경제 협의체 중간조직 뿐 아니라 프로보노, 마케팅 활동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차 활동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 2014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

2014년 7월~11월 /서울시 새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새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현장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전반의 연구와 실행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6월 16일까지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는 7월부터 11월까지 마을살이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마을연구자의 등장과 마을 스스로의 연구를 위한 공모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게 된다.

## 성남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심화과정

2014년 7월~11월/성남시청

지난 '성남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기초과정'으로 큰 호응을 받은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심화교육 과정을 준비했다. 이번 심화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역사부터 시작해 조직이론, 회계, 마케팅, 공공조달 전략 등 보다 실제 현장에 가까운 지식을 전수할 예정이다.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6월 1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했으며 다가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동안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다.

## 작은혼례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2014년 7월 8일~9월 4일 화, 목 14:00~18:00/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에서 작은혼례 웨딩플래너를 모집한다. 양성과정은 과도한 혼례비용이 사회적 문제까지 된 작금의 현실에서, 두 사람의 결합과 새로운 가정의 탄생을 축복하는 결혼식의 진실한 의미를 되찾는 '작은결혼식'에 기반을 둔 웨딩플래너에 대한 이해와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제시한다. 교육대상은 작은혼례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웨딩플래너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여성 22명이며 지난 6월 26일까지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3일 면접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2014년 8월 4일~10월 28일 09:30~13:00/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활동하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무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는 전산회계1급 자격증 대비, 사회적기업·비영리기관 회계실습 및 재무제표 이해, 사회적경제 기초행정, 조직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사회적경제 홍보 마케팅, 우수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탐방, 사회적경제의 가치 및 전문인력 비전 설계 등 교육을 제공한다. 모집기간은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다. 이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마포구청이 지원한다.



# 소통하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합니다

## 부산대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부산대학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가 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에 첫 개설.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님에도 지원 경쟁률 4:1, 총 정원 30명 중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한 4명 빼고는 26명 전원이 100%의 높은 출석률을 보이는 이 강의의 인기비결은 무엇일까. 본지는 부산대학교를 찾아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에는 이나영 부산대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연구원이 응답했다.

###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참여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9월~12월 1학기, 2014년 3월~6월 2학기 총 1년 단위로 운영됩니다. 입학사업이라 매년 참여 대학도 달라지는데요, 2013년에는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가, 2014년에는 부산대, 한양대, 한신대가 참여합니다. 부산대의 경우 참여대학 중 유일한 지역대학이자 2년 연속 참여한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큼니다.

### 학교마다 수업이 다른가요?

네. 큰 틀은 사회적경제 이론과 창업 관련 내용으로 하되, 세부적인 강의내용과 방식 등은 각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구성됩니다. 부산대의 경우 매주 금요일에 3개의 강의를 진행하는데, 각 강의마다 강사가 달라요. 교육 외에 창업 아이디어 대화가 있는데, 조별로 아이디어를 발표해 1등조에게는 상금 350만 원이 주어집니다.

### 참여 학교 간의 연계과정은 없는지요?

A1. 한 학기가 끝난 후 각 대학의 수강생들이 모여 중간보고대회를 갖습니다. 지난 4월 세 개 대학의 총 수강생 100여 명이 모여 특강도 듣고 각 대학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학생들에게 소감을 물어보니 타 학교 학생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대회 이후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SNS상에서 모임을 만들어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수강생은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 위주로만 뽑는가요?

무조건 창업을 할 사람 위주로만 뽑지는 않습니다. 정원 30명 중 10명은 부산대, 10명



은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생, 나머지 10명은 일반인(기업인, 은퇴자 등)으로 구성해, 이들이 강의를 통한 배움은 물론 서로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리더과정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부사장을 지내신 분과 사회적기업인 그리고 학생이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산대 사회적기업 리더과정 학생들은 그런 면에 있어 이점을 잘 활용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커리큘럼을 보니 강사진이 상당히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사회적기업가만이 아니라 벤처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 속하는 리더들을 초청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걸 보고 시각을 넓혔으면 합니다. 부산대 리더과정은 사회적기업연구원에 속해있기도 하다 보니 타 대학에 비해 강사 섭외에 있어 이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강사님들 또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다 보니 가까이 와주시는 데요, 수업이 끝난 후 연락처도 공유하시면서 학생들과의 네트워킹 형성에 다들 적극적이셔서 수강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 부산대 사회적기업가 리더과정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가는 무엇인가요?

'혼자'가 아닌 '협력'하는 사회적기업가를 희망합니다. 현재 수강생이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한 4명을 제외하고 총 26명(정원 30명)인데 이들 중 3~4명이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공동 창업자가 돼서 함께 사회적기업을 꾸려나가기나, 혹은 각자 사회적기업을 창업해 기업 간 콜라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다각개전투를 하는 실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 분야가 다르더라도 콜라보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으면 하며, 학생들과도 이런 면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수업이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공생관계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 과정이 거의 후반부에 다다랐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해외탐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강생 중 한 명이 사회적기업 탐방 프로젝트를 제출해 선발됐다고 오늘 제게 와 자랑을 했습니다. 리더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알게 됐고,

그 덕분에 미국에 다녀오게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탐방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니까 그 내용을 수강생들과 공유하겠다고 했는데, 기특하고 한편으론 이 과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알려나간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2014년에는 강의 운영방식이 조금 바뀔 예정입니다. 과목 3개를 개설하고 담당 교수를 9분 정도 모셔서 1과목을 3명의 교수님이 담당하는 책임교수제와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책임멘토제를 병행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연구원과 연계해, 창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연구원에 소개해서 창업으로 진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13년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에 힘입어 내년에는 부산대 안에 대학원과정이 설립됩니다. 5월 말에 교수회 승인이 나면 내년도 부터 석사과정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민서영 기자

# S O C I A L E N T E R - P R I S E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변화

Social Change  
through  
Social Enterprise

2014.10.14-  
2014.10.16

더케이 서울호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2014

# W O R L D F O R U M



주최  
함께일하는재단

주관  
SEWF 2014 한국조직위원회

사전행사  
청년캠프  
2014년 10월 12일(일) - 13일(월)  
1박2일

본행사  
포럼/패어/투어  
2014년 10월 14일(화) - 16일(목)  
2박3일

참가문의  
SEWF 2014 한국조직위원회  
Site: www.sewf2014.org  
Tel: 02-330-0740  
Mail: sewf2014@hamkke.org



### 자문위원

법률부문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  
회계부문 삼덕회계법인 박성배 공인회계사  
인사노무부문 노무법인 퍼스트 황규식 공인노무사  
법무부문 강성수 법무사  
신문부문 철도신문 윤재환 회장  
문화예술부문 한국문화예술교육총연합회 장유리 회장

### 자문교수

가천대학교 홍정화 교수  
제주대학교 고부언 교수  
한신대학교 김홍기 교수  
호서대학교 양용희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김주남 교수  
부천대학교 오형민 교수  
가천대학교 정동욱 교수  
단국대학교 신용수 교수  
한세대학교 조동업 교수  
동강대학교 임일도 교수  
안양대학교 정명희 교수  
단국대학교 심경섭 교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은 전국 지자체, 행정기관, 각 대학과 학계인 5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사회적경제지입니다. 광고와 원고 게재, 후원, 재능기부, 응원의 메시지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등록일자\_ 2012년 6월 21일

등록번호\_ 경기 다 50293

발행인\_ 고재철

편집인\_ 고재철

인쇄인\_ 두성프린팅

디자인\_ 디'트루베

발행\_ (주)한국사회적경제신문

본사\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78 1413호

Tel\_ 031-751-1076

Fax\_ 031-624-1070

E-mail\_ Ksen@ksen.co.kr

후원계좌\_ 기업은행 1350-13500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 원고모집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시각, 문제의식을 가진 독자 여러분을 필진으로 모십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필진으로 참여하셔서 보물 같은 생각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_ 매월 5일

분량\_ 1700자

주제\_ 사회적경제 관련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